

地上天國思想의 現代的 意義

李 恒 寧 *

目 次

I. 三目的의 聯關性	1. 無爲自然의 世界
II. 地上天國은 어디에 있는가	2. 綜合完成의 世界
1. 政治的 理想社會	3. 幸福追求의 世界
2. 宗教的 理想社會	IV. 地上天國 思想의 現代的 意義
3. 韓國人의 理想社會	1. 天上과 天下의 開放
III. 大巡思想의 地上天國	2. 自己와 世界의 關聯

I. 三目的의 聯關性

지금까지 우리는 대순진리회의 목적을 고찰함에 있어 첫째는 무자기를 통한 정신개혁, 둘째는 지상신선실현을 통한 인간개조를 다루고 이제 셋째번으로 지상천국건설을 통한 세계개혁을 다룰 단계에 왔다.

그러나 우리가 무자기의 상제에 이르러 정신개혁을 이루면 곧 지상신선을 실현하여 인간개조를 이루게 되고 또 동시에 지상천국을 건설하여 세계개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란 정신이 중심이 됨으로 정신이 개혁되면 정신만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체가 개조된다. 또 세계란 곧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이므로 인간이 개조되면 하나의 인간만이 개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 하나의 인간이 모여서 사는 세계 전체도 개혁되는 것이다. 원래 정신과 사람과 세계는 다른 것 같으나 그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그러할 뿐이요 정신과 사람과 세계는 원래가 하나의 실체다. 우리가 세계라

* 홍익대학교 명예교수, 법학박사

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단을 의미하지만 그 집단은 결국 인간들의 집단이므로 세계라고 하면 곧 인간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또 우리가 인간이라고 한다면 육체로 된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정신을 말한다. 인간은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지지만 육체는 사람마다 큰 차이가 없고 또 오래가면 병들고 사라져버리고 말지만 정신은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의 육체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정신만은 영구히 남아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르칠 때는 그 육체보다 그 정신에 치중한다. 가령 우리가 어떤 사람을 논할 때에는 그 사람의 육체가 크다거나 작다거나 하는 것을 따지기보다도 그 사람이 정신이 좋으나 나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좋은 사람 또는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개조되었다고 하면 그 육체가 개조되었다는 것보다는 그 정신이 개조된 것을 말한다.

우리는 정신개벽과 인간개조와 세계개벽의 순서로 대순진리회의 목적을 고찰하고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것을 말을 바꾸어 보는데 지나지 않는다. 정신개벽에서 이미 인간개조 세계개벽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또 세계개벽이라고 하면 이미 인간개조 정신개벽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순진리회의 요람에서 정신, 인간, 세계를 일단 갈라서 따로 다루고 우리가 그것을 해설할 때에도 일단 갈라서 따로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같은 사실을 말을 바꾸어 말하는 것이다.

필자는 지상신선을 다룰 때에 삼원적 일원론(三元的一元論)이라는 말로 동양사상이 일원론(一元論) 이원론(二元論) 삼원론(三元論) 다원론(多元論)을 종합해서 삼원적 일원론으로 귀착한다는 것을 말한 바 있다. 모든 것을 분석적으로 보는 서양사상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동양사상이다. 그 동양사상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세계사상을 넓혀 받아들인 대순사상도 삼원적 일원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은 크게 우주와 지구와 인간으로 셋으로 대별할 수 있다. 가장 큰 존재는 우주다. 그것은 가장 긴 시간을 가지고 가장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은 지구다. 지구도 본래는 우주의 일부이지만 다른 우주는 우리가 갈 수 없는데 대해 지구는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어서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고 따라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다른 우주의 세계와 보이는 지구를 일단 구별하여 생각한다. 또 지구 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광물과 식물과 동물과 사람은 본래가 다같이 지구에서 생겨난 것이지만 그 중에서 사람이 가장 귀하고, 다른 것들은 사람이 살아 나가기 위한 재료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서양에서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우주와 지구와 사람을 따로 생각하여 그 하나 하나에 깊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무엇이던지 종합적으로 보기를 잘하는 동양에서는 사람만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과 더불어 지구 전체를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우주 전체까지도 관련시켜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우주와 지구와 사람이 깊은 연관관계에 있고 결국은 하나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동양의 천지인일체(天地人一體) 사상이다. 이에 비하여 우주는 우주요 지구는 지구요 사람은 사람이라는 분석적 개별사상이 발달한 서양에서는 그 하나 하나에 상당히 정확한 인식을 하게 되었지만 이와 반대로 일체적인 것에 구애되어 그 일체성에 구애된 나머지 그 차이점을 관찰하는데 소홀했던 동양에서는 사물의 인식이 철저하지 못하였다. 서양에서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이 각각 전문적으로 발달되었으나 동양에서는 자연, 사회, 인간의 구별이 모호하고 과학적 관찰보다는 철학적 사색이 발달되어 결과적으로 과학적 낙후를 보게 되었다.

서양의 발달된 과학은 물질의 생산을 풍부하게 하여 인간의 생활에 크게 편리를 주었으나 동양의 철학적 사고는 합리적인 과학보다도 신비적인 종교적 차원으로 흘러 인간의 일이라도 그것을 우주적 차원에서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와 정신적 생활은 풍부해졌으나 물질적 생활은 빈약하였다.

정신과 물질 중 그 어느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나 하는 것은 오랫동안 논의되었지만 아직도 확답이 나오지 않았다. 물질이 풍부하여야 행복하냐 정신이 만족되어야 행복하냐 하는 것은 육체가 건강하여야 행복하냐 마음이 편안하여야 행복하냐 하는 문제와 같다. 그 마음이 편안하려면 그 마음을 담고 있는 육체가 편안하여야 한다는 것이 보통 생각일 것이다. 육체 그 자체는 하나의 물질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를 유지하려면 우선 물질이 필요한데 그러함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먼저 물질적 필요를 해결해주는

의식주의 공급이 필요하다. 이로 보면 물질이 없으면 인간의 행복을 기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현재의 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도 보고 현재의 장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도 생각한다. 그것은 영원을 생각하는 것이다. 물질의 순간적인 것에서 정신의 영원적인 것을 깨달은 점에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졌다. 다른 동물은 그저 현재적 물질적 필요만 충족시키면 그것으로 사는 목적을 다하고 그것으로 행복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은 현재적 육체보다 영원한 정신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여 육체가 건전하더라도 그것은 곧 사라질 것임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정신이 건전하지 못하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되었다. 서양사람은 물질과 정신을 따로 생각하지만 동양사람은 물질과 정신이 본래는 하나이던 것이 갈라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하나가 된다고 생각한다. 서양사람은 물질적 행복과 정신적 행복을 따로따로 생각하여 우선 물질적 행복을 취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 행복을 취하지만 동양사람은 물질과 정신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물질과 정신이 가같이 충족되어야만 인간으로서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에 있어서는 물질과 정신은 이자택일(二者擇一)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자공존(二者共存)의 관계에 있다. 동물은 오직 물질만이 있지만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물질 속에 정신을 내포하고 있어 물질보다 정신을 더 소중히 생각한다.

대순진리회가 목적으로 정신개벽을 내건 것은 물질을 무시하여서가 아니라 물질 속에는 정신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을 먼저 중요시한다. 우주의 원기(元氣)는 본래 정신과 물질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 정신은 본래 착하여 양심이 근본이요 그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사람이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인간 본연의 자세요 만일 양심에 어긋나게 움직인다면 그것은 자기의 양심을 거역하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결코 편안할 수 없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인간은 살아가면서 욕심이 생겨 그 욕심이 양심을 가려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도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게 되기가 쉽다. 그것은 인간이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육체를

유지하고 그 육체를 더욱 편안하게 하고 그 육체의 본능을 더욱 만족시키기 위하여 인간은 양심을 속이는 자기(自欺)의 생활을 하기가 쉽다. 이러한 인간의 자기를 속이는 행위는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관습화되다시피 되었다. 인류사회에는 생존경쟁을 위하여서는 비양심적 행위를 하여도 무방한 것처럼 인식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양심적인 행위가 그대로 계속된다면 인류는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멸망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류는 다른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양심으로 존엄성을 유지하여 만물의 영장이 되었는데 그 양심이 마비되면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는 것이요 인간이 그 존엄성이 상실되면 동물과 다름이 없게 된다. 인류가 멸망한다는 것은 인류라는 종류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저 동물로만 남는다는 뜻이다. 인류가 동물적 본능만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없다면 결국 인류로서는 멸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양심을 속이는데서 일어나는 인류멸망의 위기는 이제 그 근본을 바로잡지 않으면 곧 사실로 닥쳐올 운명에 있다. 대순진리회가 정신개혁을 들고 나온 급박성이 여기에 있다. 이제라도 인간이 그 본연의 양심으로 돌아가야만 하겠는데 세상인심이 갈수록 혼미하니 이제 이것을 바로 잡자면 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비상수단이 개혁이다.

개혁은 천지가 새로 생기는 것 같은 대변화를 의미한다. 보통 변해가지고서는 인간의 양심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근본으로부터 뒤집어 놓은 정신개혁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결국 양심을 덮고 있는 욕심을 물리치는데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자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무자기의 양심 본연의 자태로 돌아가기 위하여 종지와 신조를 믿고 지켜야 한다. 인간은 본래 양심적 존재로 물욕에 더럽힌 속된 것이 아니고 신선과 같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존재였다. 그러나 속세에 물들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선의 자취는 간 곳이 없고 더럽고 추한 속물의 자취만이 남은 것이 현실이다. 인간이 그리워하던 신선은 이미 이 세상에는 없고 이 세상에는 욕심 많은 속인들만의 천지가 되었는데 이리되면 그것은 동물보다도 더 더럽고 추악한 존재라 할 수밖에 없다. 대순진리회는 이러한 인간을 인간답게 개조하지 않으면 인간의 존재의미가 없어짐으

로 지상신선의 실현으로 인간개조를 강조한다. 그런데 인간은 정신과 육체로 되어 있지만 정신이 주가 되므로 정신개벽이 되면 그것이 곧 인간개조가 되고 그때의 인간은 세속적인 속물이 아니라 인간이 오래 그리고 구하던 신선이 된다. 그저 먼하늘 저쪽에 상상으로만 존재하던 신선은 이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

양심을 회복하고 무자기의 상태에 이를 인간은 정신개벽과 동시에 인간개조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비양심적인 인간들이 가득 찬 세계는 그야말로 지옥이다. 자기를 속이는 데서 시작한 인간은 다른 사람도 속여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사는 낙원은 멀리 하늘 저쪽에서나 있는 것이요 이 현실세계는 허위와 고통으로 찬 지옥과 다름없게 된 것이 오늘의 세계다. 이러한 허위와 고통의 세계를 그냥 방치한다면 인류는 나면서부터 지옥 생활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대순진리회는 이 세계를 개벽하여 지옥으로서의 세계를 천국으로서의 세계로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그것이 지상천국건설이다.

지상천국에 사는 사람이 지상신선이요 지상신선은 양심대로만 살고 자기를 속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정신개벽이 이루어져 무자기의 인간이 회복되면 그 인간들이 사는 지상이 바로 천국이 된다. 동양사람은 천지인 즉 우주와 지구와 인간을 따로 따로 생각하지 않고 합일적으로 생각하여 정신과 인간과 세계를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순진리회의 목적을 세 가지로 나누었으나 그 실체는 하나이다.

그러므로 정신을 따진다고 물질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요 인간을 따진다고 세계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천지인이 하나이듯 정신과 인간과 세계도 하나이다. 그러나 그 실체는 하나이나 그 타나나는 양상은 정신과 인간과 세계의 세 가지 종류로 된다. 이제 그 마지막인 세계개벽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고자 한다.

II. 지상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대순진리회는 그 목적의 하나로서 지상천국건설을 통한 세계개벽을 들고 있다. 천국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에 있는 나라인데 인류는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상사회에서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그러한 고통이 없는 낙원을 대망하고 있는데 그러한 낙원은 이 현실세계에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현실을 떠난 하늘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천국이라는 것은 살아서는 갈 수가 없고 오직 죽어서만 갈 수 있는 상상의 나라이다. 그러나 사람의 낙원에 대한 염원은 점점 더해가서 죽어서나 갈 수 있는 천국을 살아서 갈 수 없나 하고 생각하고 이 현실 세계에도 천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천국이란 말이 꼭 하늘에만 있는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이상사회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천국이란 말은 꼭 하늘에만 있는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상사회인 뜻이다. 원래 천국은 하늘에 있으므로 천상천국(地上天國)이라 하는 것이 옳지만 이 현실세상에서도 이상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상천국(地上天國)이란 말이 생겼다. 그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대순진리회의 목적이다.

하늘나라가 아닌 이 지상에서 천국을 건설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욕심으로 이루어진 이 지상에 양심으로 이루어진 천국을 건설하는 것은 마치 진흙구렁에서 보석을 찾고자 하는 것과 같다. 진흙물을 그냥 두고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보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진흙물을 전부 퍼내서 없애버리는 것이다. 진흙물을 그냥 두고 아무리 찾아야 보석이 보이지 않지만 진흙물을 다 퍼버리고 없애고 난 뒤에 땅 속을 찾아보면 그 땅속에서 보물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진흙물을 그대로 두고 보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진흙물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니 이것은 일종의 개벽이라 할 수 있다. 이 혼란한 세상을 그대로 두고 천국을 건설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진흙을 그냥 두고 보석을 찾는 것과 다름이 없다. 보석을 찾으려면 그 진흙부터 없애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개혁이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면 이 세상에 덮혀 있는 진흙부터 치워 없애야 한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잔뜩 깃들여 있는 욕심부터 없애야 한다. 그 욕심을 없애면 양심이 드러난다. 욕심을 없애고 양심을 드러내는 작업이 정신개혁이다. 정신개혁이 이루어지면 인간개조가 되고 세계개혁이 된다. 세계가 개혁되면 거기에는 양심의 나라인 천국이 건설된다.

이 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많은 성현군자 종교가나 철학자, 사회사상가나 정치가나 혁명가들이 여러 가지로 구상도 했고 또 실천도 하였다. 그러나 별로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이제 대순진리회는 세계를 개혁하여서 그 천국을 건설하는 길을 열었다.

이제 그 세계개혁을 말함에 앞서 그 동안 오랫동안 인류가 생각하였던 지상천국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천국은 천상에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도 있게 하는 것이 지상천국사상이다. 지상천국이라는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 동안 인류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실천하여 왔는데 이제 그 중요한 자취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정치적 이상사회

가장 완전한 인간상은 성인(聖人)이요 가장 이상적인 사회상은 낙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상사회에 관하여서는 실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상사회를 생각하는 사람은 먼저 정치의 이상사회를 구상하였다. 정치라는 것은 원래 이 세상을 이상세계로 만들겠다는 염원에서 출발되었지만 권력이라는 것은 이상사회건설보다는 현재의 권력구조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아서 실제로 권력을 잡은 정치가는 이상세계보다는 현실세계를 더 중히 여겼다. 그러므로 정치적으로 이상사회를 구성한 사람은 정치가보다도 철학자나 사회사상가에게 많다.

동양에서는 일찍이 공자(孔子, B.C.551-497)가 대동사회(大同社會)를 대망했고 서양에서는 플라톤(Platon, B.C.427-347)이 이상국(理想國)을 구상했다. 공자는 대동사회는 이상적이지만 그 실현이 어려움으로 그 다음 단계인 소

강(小康)사회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플라톤의 이상국도 심오하게 구상되었지만 그것이 실현된 일은 없었다. 영국의 정치가이며 인문주의자인 토마스 모어(Thomas more, 1478-1535)는 유토피아(Utopia)라는 정치적 공상소설을 썼는데 이것은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상사회론은 대개 공상에 끝나는 일이 많다. 토마스 모어외에 캄파넬라(Thomas Campanella, 1568-1639)가 「태양의 도읍」 베이컨(Francia Bacon, 1561-1626)의 「뉴아틀란티스」 등이 있고 18, 19세기의 생시몬(Saint Simon, 1760-1825) 프티에(Fowier, 1772-1858) 오웬(Robert Owen, 1771-1858)등의 사회주의적 이상사회론이 있고 푸르돈(Proudhon, 1809-1865) 고드빈(Godwin, 1756-1856) 바쿠닌(Bakunin, 1814-1876) 크로포트킨(Kropotkin, 1842-1921)등이 무정부주의(Anarism)을 주장한 것도 일종의 이상사회론이다.

이상사회의 구상은 실로 다양하지만 대개 실현불가능 한 것들이 많았다. 칼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는 지금까지의 유토피아적 이상사회론은 모두 공상에 불과하다고 배척하고 과학적 이상사회로서 공산주의 사회를 구상하고 또 그 사상이 레닌(Nicolai Lenin, 1870-1924)에 의하여 받아들여 러시아에 1919년에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였으나 1991년에 붕괴되고 말았다. 러시아의 공산주의화로 러시아에 가까운 동구 국가들 사이에 공산주의 체제를 취한 나라가 많았으나 러시아의 공산체제 붕괴로 그들도 붕괴되었다. 동양에서는 중국의 모택동(毛澤東, 1893-1976)이 공산국가를 이룩했고 동남아 국가에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도 있다.

공산국가가 몰락하면서 미국 등지에서 자유적 민주주의가 이상사회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생겼다. 정치적 이상사회 건설은 그렇게 어려운 것으로 앞으로도 구상이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된다.

(1) 공자의 대동사회

공자는 유교라는 종교의 교조이므로 그가 주장한 이상사회를 종교적 이상사회로 볼 수도 있으나 공자는 종교보다도 정치적 관심이 더 컸으므로 그를 정치적 이상주의자로 볼 수 있다.

예기 예운편 제9(禮記 禮運篇 第九)에 대동(大同)과 소강(小康)을 말하고

있다. 대동세계에서는 대도(大道)가 행해져서 천하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데 공동체라는 것은 사사로운 개인을 넘어서 민중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동사회에서는 사유재산도 없고 가족제도도 없고 권력기관도 없다. 천하의 재산은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꼭 자기가 갖어야 할 필요도 없고 땅에 싸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대중을 골고루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부모도 자기 부모처럼 섬기고 남의 자식도 자기 자식처럼 보살핀다. 공동체 안에서는 착한 사람을 골라 관리를 맡기기 때문에 권력기관도 필요 없고 권력을 자기를 위하여 쓰는 일도 없다.

공자가 구상한 대동사회는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와 비슷하다. 너무나 이상에 치우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공자 자신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공자는 대도가 행하여지는 대동사회를 이상으로 하면서도 그 비현실성에 착안하여 차선의 이상사회를 구상했는데 그것이 바로 유교의 왕도(王道)사상이다. 공자는 이어서 말하기를 지금은 대도가 이미 흐려져서 천하가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의 가족이 중요하게 되고 사유재산 제도와 국가제도가 생겨서 그것을 공정하게 운영하는 성인(聖人)이 나타나서 겨우 편안함을 유지하는 소강사회라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소강사회도 잘 실현되지 않고 성인이 아닌 권력자가 권력을 남용하는 패도(覇道)정치가 판을 쳤다.

공자는 인간 개인을 사회집단보다 더 중요시하여 국가에 있어서도 제도보다도 인물을 역설했다. 공자는 지인용(智仁勇)의 중용(中庸)을 이룬 성인만 있으면 사회는 온전하다고 생각했다. 공자가 소강사회에 만족하고 대동사회까지 바라지 않은 것은 사회보다 인간을 더 중요시한 때문이다.

(2) 플라톤의 이상국

플라톤은 그의 국가론(Politeia)에서 정의(正義)에 언급한다. 그의 국가론에는 「일명 정의에 대해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국은 정치와 유리가 일치된 윤리적 국가이다. 즉 정의가 이루어진 국가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를 건설하는데 국가는 우선 최소한의

필요로 한정된 공동단체로서 4명 또는 5명으로 발족하며 차츰 인간의 욕망이 복잡해짐에 따라 그것을 만족시킬 과분한 국가로 발전해간다. 국가 발전의 동기가 되는 것은 분업(分業)이다. 그는 국가를 통치자 계급과 무인(武人) 계급과 농부 목수 상인 등으로 이루어진 서민(庶民) 계급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은 그가 인간의 심리를 이성(理性)적 부분 의지(意志)적 부분 욕망(慾望)적 부분으로 나누고 그 부분에 지혜, 용기, 절제(節制)란 세 개의 덕을 배당한 것에 기초한다. 정의란 이러한 분업을 원리로 한다.

플라톤은 국가는 일종의 큰 인간으로 완전한 유기체요 완전한 통합이라 하였다. 그는 인간의 심리인 이성과 의지와 욕망의 3가능이 도덕이 되기 위하여는 지혜와 용기와 절제의 3원덕(原德)이 되어야 하는데 이 3원덕은 1개인으로서 실현시키기 곤란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통치계급이 되고 용기가 있는 사람은 군인계급이 되고 절제가 있는 사람은 서민계급이 되어 이 3원덕이 조화되어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정의가 실현된다고 하였다.

플라톤은 이상사회를 구상하여 그 이상사회 안에서 각인이 그 특성을 살려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생각했다. 공자는 지인용을 3달덕(達德)으로 생각하였는데 플라톤은 지혜와 용기와 절제를 3원덕으로 생각한 것은 비슷하다. 사람의 심리구성은 이성과 의지와 욕망으로 본 것도 비슷하다. 이성에서 공자나 플라톤이 다 같이 지혜를 찾았고 의지에서 공자와 플라톤이 다 같이 용기를 찾았으며 욕망에서 공자는 인자함을 구했고 플라톤은 절제를 구했다. 이성과 의지에 관해서는 공자와 플라톤이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였고 욕망에서는 공자나 플라톤이 다 같이 성선설을 밀고 공자는 인자함을 찾았고 플라톤은 절제를 찾은 것도 비슷하다.

인간의 심리를 깊이 관찰하여 지인용의 인격적 중용성(中庸性)과 지혜 용기 절제의 조화에 의한 사회적 정의성(正義性)을 말한 것도 비슷하나 공자는 어디까지나 이상인간인 성인을 더 중요시하고 플라톤은 개인적인 이상인간 즉 중용보다는 집단적인 이상사회 즉 정의를 더 중요시 한데에 차이가 있다.

공자는 이상인이 있으면 이상사회는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고 플라

튼은 이상사회가 되어야 각자의 개성을 다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하여 이상사회를 이상인보다 우선시킨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 종교적 이상사회

현실세계에서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현세를 떠난 내세나 지구를 떠난 천상에서나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종교가이다.

종교는 현세의 고통을 현세에서는 해결할 수 없고 사후나 내세에 가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고 그것을 극락, 천당 등으로 불렀다. 종교의 교리는 대부분 권선징악(勸善懲惡)을 장려하고 생전에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죽어서 천당이나 극락에 가지만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다.

(1) 불교의 이상사회

불교는 이 세상을 고택(苦海)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현세에 이상사회는 없고 사후에 생전의 공덕으로 가는 이상사회인 극락이 있다. 불경의 아미타경(阿彌陀經)에 의하면 불교의 이상세계는 극락정토(極樂淨土)인데 이 사바세계(娑婆世界)에서 서방(西方)으로 십만억불토(十萬億佛土)를 지나간 곳에 아미타불이 계시고 항상 설법하며 모든 일이 구족하고 즐거움만 있고 괴로움은 전혀 없는 자유롭고 안락한 이상향으로 되어 있다.

또 미륵상생경(彌勒上生經)을 보면 미륵보살이 도솔천(兜率天)에 계신데 이 도솔천을 수미산(須彌山) 꼭대기로부터 12만 유순위에 있는 하늘인데 칠보로 만든 아름다운 궁전이 있고 한량없는 하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미륵하생경(彌勒下生經)에서는 미륵보살이 도솔천으로부터 하생하여 영화수(龍華樹)아래서 성도한 뒤 3회의 설법으로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였다. 이 용화세계에 있어서는 토지가 풍부하고 인민이 번성하며 도시가 서로 잇달아 있고 국토는 평탄하고 쪽 고르며 거울처럼 말숙하고 깨끗하며 곡

식이 풍족하고 온갖 보배가 흔하다고 하였다. 또 좋지 못한 과일 나무는 다 말라 없어지고 더러운 물건도 다 소멸되고 달고 향기로운 과일 나무가 땅에 나타난다. 그때는 기후가 고르고 4시가 조화되며 사람의 몸에는 108종류의 질병이 없고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 없어지고 사나운 마음이 없으며 인심이 골라서 다 한 뜻과 같으며 서로 보면 기뻐하고 좋은 말을 주고 받으며 그 말이 통일되어 차별이 없다. 그때에는 이 세상의 인민이 다 골고루 잘 살아서 차별이 없으며 대소변을 하려하면 땅이 저절로 열리고 일 마친 뒤에는 다시 합친다. 그때에 이 땅위에 자연생의 곡식물이 껍질도 없으며 매우 향기롭고 달며 먹으면 모든 병고가 없다. 그리고 금이니 은이니 진주 호박이니 하는 보물이 땅에 흩어져 있어도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거나 집어가지 않는다. 그때의 인민들은 손에 이런 보배를 들고 서로 말하기를 옛사람들을 왜 이따위 물질로 말미암아 서로 빼앗고 도둑질하다가 옥에 잡혀 가두게해 고통을 받았다는데 이제는 자갈들과 같이 여기에 사람들이 따로 지키고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서방정토나 도솔천의 극락은 모두 현실세계가 아닌 사후세계의 것인데 미륵하생경에 나타난 이상사회인 용화세계(龍華世界)는 바로 현실세계에 존재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미륵상생신앙은 서방정토나 도솔천이라는 피안(彼岸)에서 극락을 찾는 정토신앙(淨土信仰)인데 미륵하생신앙은 극락을 피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상에서 찾는 점에서 지상천국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미륵하생의 지상천국사상은 신라의 화랑(花郎)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신라의 화랑제도는 국가를 수호하는 청년집단인데 종교적 예술적 도덕적 군사적 수련을 함께 하여 신라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신라의 국방을 강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삼국통일을 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들은 도의를 서로 닦고 노래를 즐기고 전국 산수를 모두 즐겨찾아(相磨以道義 相悅以歌樂 遊娛山水 無遠不至) 심신을 단련하였는데 그들은 미륵하생신앙을 그 단결의 기초로 하였다. 화랑제도는 진흥왕(眞興王)때에 성립되었고 다음 진지왕(眞智王)때에 흥륜사(興輪寺)의 진자(眞慈)스님은 본존 미륵상 앞에서 미륵이 화랑으로 화신하여 이 세상에 출현할 것을 소원하여 미륵선화(彌勒仙花)

라는 소년을 만났다. 진평왕(眞平王)시대에는 화랑의 무리들이 스스로 용화향도(龍華香徒)라고 하였고 경덕왕(景德王)시대에는 화랑인 월망사(月明師)가 도솔가(兜率歌)를 부르고 미륵을 모셨다. 화랑제도는 화랑이 미륵이 화생한 화신이라고 생각하여 국가에 충성을 다하였다.

미륵하생신앙은 신라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한국의 민간신앙으로 유지되어 왔다. 전경 교운 1·9에 보면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역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 대법국 천계 탑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하다가 이 동토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삼층전 미륵 금불에 이르러 30년을 지내다가 최재우에게 제세대도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현을 넘어 대도의 참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미년이 강세하였노라」고 한 것을 보면 증산도 미륵하생사상에 공명하고 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증산의 지상천국건설사상은 미륵하생사상과 많은 공통점이 있다.

(2) 도교의 이상사회

도교에서 이상사회로 여기는 것은 신선이 사는 선경(仙境)인데 특히 삼신산(三神山)을 좋아한다. 도교에서는 옥황상제(玉皇上帝) 또는 원시천존(元始天尊) 태상노군(太上老君) 현천상제(玄天上帝) 북두신군(北斗神君) 문창제군(文昌帝君) 그타 여러 하느님이 계신 삼청(三清) 또는 옥경산(玉京山)아래 인간이 신선이 될 수 있는 불사(不死)의 약이 있는 삼신산이 있다고 한다. 봉래 방장 영주(蓬萊 方丈 瀛州)의 삼신산은 멀리서 바라보면 구름으로 보이고 가까이 가서보면 없어져버리는 신기루와 같은 낙원이다.

도교는 노자(老子)를 숭상하는데 그 노자는 인위적인 제도를 부인하고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역설했다. 노자는 현실적으로 국가생활을 아니할 수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국과민(小國寡民)사회가 좋다고 하였다. 소국과민사회는 영토가 작고 인민이 적은 나라인데 자연스럽고 평화스럽게 사는 조그마한 자연 공동체다. 그것은 농촌에서 자연촌락을 이루고 천명을 즐기며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데서 행복을 느낀다. 그것은 하나의 자연집단이기 때문에 그저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족한 것이요 멀리 나간다던지 또는 다른 곳을 처

들어 갈 필요가 없다. 그 자연촌락을 국가로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그것을 소국(小國)이라 했는데 그러한 소국들이 서로 자기처지에 만족하고 큰 나라를 만들어 부국강병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점에서 이 소국과민사상은 일종의 무정부주의사상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위적인 것을 피하고 무위의 상태가 바로 도교의 이상사회이다.

도연명(陶淵明)은 도교신자라기보다 유학자인데 그가 지은 도화원기(桃花源記)는 도교적 색채가 강하다. 이 기록은 진(晉)의 태원(太元)중 무릉(武陵)사람이 고기를 낚으며 시내를 따라 들어가다가 길의 원근을 잊어버리고 도화림(桃花林)을 만났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그렸다. 그들은 그저 소박하고 정답게 살며 밖에 나가지 않아서 한(漢)나라 위(魏)나라와 진(晉)나라의 흥망성쇠도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 도화원기에 나타난 마을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농촌사회로 경치가 좋고 인심이 착하여 모두 낙천적으로 평화스럽게 살고 있어 무릉도원(武陵桃源) 또는 도원경(桃源境)이라고 하여 동양인의 이상사회를 나타내고 있다.

자연적 풍토에 적응하여 주로 농경생활을 하는 동양인에게는 그 자연스러운 농촌이 곧 낙원이다. 자연에 인공을 가하여 복잡한 문명을 이룬 서양에서는 화려한 도시가 이상사회가 될 것이다.

(3) 기독교의 이상사회

기독교의 이상사회인 천당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예수가 계시는 곳이지만 그 천당에 관해서 단테(Dante, 1265-1321)는 신곡(神曲)에서 지옥의 처참함과 죄를 씻기 위한 연옥(煉獄)의 엄숙함과 천당의 장엄함을 그렸다. 천당은 축복된 영혼들이 사는 하늘의 세계요 여기서는 모든 희망은 성취되고 기도는 찬미 속으로 살아지고 지상의 탄식은 기쁨으로 변하고 전세계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며 매우 아름답다. 광명은 불꽃이 되어 빛나고 토마스 아퀴나스 성 베드로 성요한과 같은 교회의 높은 성인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유스치아누스 황제등으로부터 이탈리아의 역사와 자기의 운명 등에 관한 지식을 얻는다. 최고의 하늘에 이르면 성도의 무리는 큰 장미

의 형태로 나타난다. 번쩍이는 섬광(閃光)속에 근본적 진리가 직관되고 단번에 우주의 전구조와 삼위일체의 신비를 파악한다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4) 이슬람의 이상사회

이슬람의 내세(來世)는 어떠한가? 이슬람의 경전 코란(Koran)은 내세의 존재를 역설하고 이것을 알라(allah)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다음 순서에 두고 이슬람의 진수는 알라와 내세의 두 신앙에 결집시키고 있다. 코란은 알라는 인간에 생명을 주고 이것을 기르고 다음에 이것에 죽음을 주고 또 무덤에 묻고 다음이 때가 되면 이것을 부활시켜서 최후 심판에 의하여 각 사람에게 그 영언의 운명을 선고한다. 심판에 의하여 3종류로 갈라지는데 우방(右方)의 무리와 좌방(左方)의 무리와 제3의 무리로 갈라진다. 이중에서 제3의 무리는 수선자(首先者)인데 신좌(神座)에 가까이 갈수 있고 낙원에 산다. 그들은 장엄한 자리위에 서로 마주앉아 영원한 소년이 그 옆에서 모시고 청주(淸酒)가 넘치는 잔을 바친다. 이것을 마셔도 취하지 않으며 과일은 가리는 대로 새와 고기는 희망하는 대로 맡겨진다.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큰동자를 가진 소녀는 그들의 소행에 대한 보상이다. 여기에서 그들은 나쁜 말을 듣지 않고 다만 평안한 말만 듣는다. 우방의 무리는 가시없는 나무, 과일이 주렁주렁달린 바나나나무, 울창한 나무 그늘, 맑은 샘물이 흐르는 논두렁에 여러 가지 과일이 있어서 결핍하지 않고 먹는 것을 금하지 않는 곳에 살고 장엄한 자리 위에 앉아 있다. 이들은 미녀(美女)를 만들어 이것은 영원한 처녀로하여 연령이 젊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그렇다면 좌방의 무리는 어떠한가? 그들은 열풍과 끓는 물 사이 검은 연기의 그늘에서 서늘하지 않는 곳에 산다. 지금까지 환락에 빠져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나쁜 과일을 먹고 배를 채우며 끓는 탕물을 마시는 것을 목마른 낙타가 마시는 것과 같이 한다.」(코란 제56장) 우방인이 가는 낙원은 환희에 넘치고 좌방인이 가는 지옥은 고향에 가득차 있다.

코란에 그려진 천상의 낙원은 경기 좋은 곳에서 좋은 잠자리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소녀와 순결한 부인들에게 둘러싸여 지상에서 맛볼 수 없는 무쌍의 열락에 젖게 되어 있다.

3. 한국인의 이상사회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단군고기(檀君古記)에 의하면 한국인은 세 개의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하늘나라(桓國)이요 둘째는 신선나라(神市)이요 셋째는 조선(朝鮮)나라이다. 하늘나라에는 하느님(桓因)이 계시는데 그 하느님은 광명이고 하늘나라는 광명의 나라이다. 환(桓)이라는 한자는 본래 「곧셀 환」 자인데 단군고기에서는 곧세다는 의미(意味)보다도 「환」이라는 발음(發音)을 따서 「환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요 하느님도 환한 분이란 광명을 의미한다. 신선나라에는 하느님의 둘째 아드님(庶子)이신 환웅(桓雄)님이 여러 신선을 거느리고 계시는데 환웅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백두산의 본래 살고 있던 원주민의 여왕인 곰녀(熊女)와 결혼해서 단군을 낳는다. 곰(熊)이라는 것은 동물인 곰을 의미하는 것보다 검(儉)이란 음을 딴 것인데 검이라는 음이 곰 또는 감으로 변한다. 검은 제일 높은 수장(首長)이라는 뜻이다. 우리말에 한나라의 수장을 임검 또는 임금이라고 하고 높은 사람을 대감이라 하고 남자를 높여서 부를 때는 영감이라고 하는 따위가 다 검이니 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은 일본으로 흘러가 감으로 발음 되는데 일본말의 가미(かみ)는 윗사람 또는 하느님(神)의 의미로 쓰인다. 신선나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들만 있었는데 환웅님이 지상의 여왕과 혼인하여 단군(檀君)을 낳아 그 단군이 비로소 조선이라는 지상국가를 세운 것이다. 단군의 단자는 흙토변에 쓴 제단단(壇)자와 나무목변에 쓴 박달나무 단(檀)자를 같이 쓰고 있는데 제단단자를 쓸때에는 통치자는 하늘에 제사지내는 제사장(祭司長)을 겸한 것을 의미하고 박달나무 단자를 쓸때에는 「밭」다는 음을 따서 광명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나라가 셋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천지인 삼재(天地人 三才)사상과 하나가 셋으로 갈라진다는 3태극설(三太極說)과도 관계가 있다. 하늘에는 하느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가 있고 지상에는 단군님이 다스리는 조선나라가 있고 그 하늘과 땅 사이에는 환웅님이 다스리는 신선나라가 있는데 이 세나라가 모두 한국인이 생각하는 이상사회이다.

우리 민족이 생각하는 하느님은 광명인데 광명은 암흑의 반대로 사랑과 착함과 기쁨과 희망과 평화를 의미하지만 암흑은 미움과 악함과 슬픔 근심

과 폭력을 의미한다. 대개 다른 나라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만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심판을 하여 벌을 준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믿는 하나님은 그 아들인 환웅이 아버지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늘 나라를 버리고 지상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그 아들의 뜻을 이해하고(女知子意) 그 아들의 소망을 들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다른 나라의 하나님은 하늘나라만을 낙원으로 삼고 지상에는 고통과 죄악이 차있어서 이 지상은 저주의 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들의 하나님은 천상의 천국에 계시면서도 지상을 버리지 않고 지상에도 낙원을 만들어서 지상천국을 건설하도록 하셨다.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사상인데 한국 민족의 특이한 지상천국사상이다. 단군고기에 환웅님은 하늘나라를 버리고 지상으로 가겠다고 하고 또 하늘사람보다 인간을 더 좋아했는데 보통 같으면 하나님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아들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 아들을 지상으로 보내는데 그때 그 아들에게 지상천국을 건설하라는 사명을 주신다. 이것이 하늘의표(天符印) 3개와 홍익인간의 사상인데 이에서 지상천국의 길이 열렸다. 그 지상천국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원시적 형태이지만 그것은 하늘나라를 본딴 것으로 되어있다. 하늘나라를 다짜고짜로 지상에 옮길 수는 없으므로 우선 신선나라를 세워 지상의 나라의 모범을 보이고 그 모범에 의하여 지상국가도 운영하도록 하였다.

신선나라는 신선이 산다고 하여 그냥 공기만 마시고 사는 무위(無爲)의 세계가 아니고 국가로서의 조직과 기능을 다 갖춘 이상국가의 모델이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원칙은 권력도 법도 아닌 이치 또는 진리이므로 그것을 이화(理化)라고 했다. 바람과 같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구름과 같이 그늘을 주어 모두가 평등하게 편이 쉬게 하고 비가 풍부하게 내려 생명이 평화스럽게 자라도록 하였고 국가의 기능도 국민의 전 생활을 보살피 주도록 되어 있다. 보통 국가라고 하면 군사력이나 권력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국민을 강제 통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신시에서는 먼저 곡식과 생명과 질병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이것이 주곡(主穀) 주명(主命) 주병(主病)이요 그 다음에 가서야 치안질서를 문란케 한자를 벌하는 주형(主刑)과 교육을 잘 시키는 주선악(主善惡)을 하도록 되어 있다. 신시에서는 먼저 의식주를 충족시키

는 경제를 잘 되게 하고 생명과 질병을 잘 관리하여 생태계의 환경을 잘 조화시키는 것을 말하였고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적 안전, 정신적 교양을 쌓도록 국가를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천지인이 원래 일체이므로 하늘나라와 신선나라와 조선나라는 본래 하나이다. 지상에 살면서 천국에 사는 것 같고 속세에 살면서 산중에서 신선처럼 사는 것 같고 하늘에 살면서도 지상에 사는 것과 같은 천지인 일체의 생활이 한국인의 이상인상이요 한국인의 이상사회상이다.

단군고기에 나타난 우리 선인들의 생각을 곧 민족의식의 원천이요 민족문화의 표본이다. 천상과 지상이 따로 없고 하늘사람과 지상사람이 따로 없고 낙원과 지옥이 따로 없는 천지인일체의 생활에서 한국인은 행복을 찾고 있는 것이다.

Ⅲ. 대순사상의 지상천국

대순진리회는 지상의 이상사회를 지상천국, 후천선경, 조화선경, 도통진경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모두 비슷한 말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스러운 이상적인 지상사회를 뜻한다.

천국이나 천당이라는 말은 기독교계통에서 많이 쓰고 극락이나 정토라는 말은 불교계통에서 많이 쓰이며 동양에서는 선경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또 낙원이라는 말도 하는데 같은 뜻이다. 그러한 이상사회는 옛부터 인류의 최대 염원으로 지금까지 대망해왔다. 그러면 대순진리회의 이상사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1. 무위자연의 세계

자연과 인성은 본래 착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여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인성도 본래 착한 것인데 그 본성대로만 살면 인간은 신선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인지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됨에 따라 인간이 오만해져서 자연을 무시하고 인성을 거역하게 되어 지상에서 낙

원이 사라지고 인간에게 악인이 생기게 되었다. 일찍이 노자(老子)가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역설하고 인위적 가공(人爲的加工)을 좋지 않게 보았고 근래에 와서는 서양의 루소(J.J.Rousseau, 1712-1778)가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것을 역설했는데 증산계서도 원시반본(原始返本)을 주장하여 자연의 원상태로 돌아가기를 바랐다. 전경 교법 3-26에 「옛적에 신성이 입극하여 성웅이 겸비해야 정치와 교화를 통제관장하였으되 중고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을 보지 못하게 되었나니 이제 원시반본이 되어 군사위(君師位)가 한갈래로 되니라」 하였다. 원시시대에는 성인(聖人)과 영웅(英雄)이 겸비되어 성인의 마음으로 자연에 순종하여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착한 것을 지켜왔다. 성인과 영웅 겸비한다는 것은 도덕과 정치가 일치한다는 것인데 성인과 영웅이 갈라지면 정치는 도덕을 무시하고 권력대로만 하게 되어 세상이 타락한다. 인간이 오만해져서 자연을 정복하려고 나오는 바람에 자연이 파괴되고 천도가 훼손되고 인성이 악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원시반본하는 것이 지상천국을 이루고 세계개벽을 달성하는 길이다.

또 전경 교운 1-9에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신의 상도가 어지럽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라고 하여 자연정복사상을 배격했다.

지상천국은 후천개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언뜻 생각하면 선천시대의 모든 것이 부정되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되나 본래 천지가 개벽되고 인간이 출현할 때에는 천지가 조화롭고 인간이 선량했었다. 그것이 오래가는 동안에 천지도 어지러워지고 인간도 타락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천지개벽과 새로운 인간개조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후천개벽이다. 그러므로 후천개벽은 새로운 개벽이라기 보다는 본래의 개벽으로 복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원시반본이다.

새롭게 개벽된 세계는 인간의 원시적인 무위자연의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다.

2. 종합완성의 세계

원시시대는 모든 것이 하나이었다. 그 하나가 여럿으로 갈라나와 그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는 세계가 편안하고 인심이 선량했으나 그 갈라져 나온 것들 사이에 상극(相克)의 원리가 작용하여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바람에 천지가 어지러워지고 인간이 사악해졌다. 본래는 천지인 일체로 우주와 지구와 인간이 하나였다. 천기의 원기인 태극에서 갈라나온 음양양기가 서로 조화되어 만물이 번성하였는데 음양이 상극되기 시작하고 천지가 갈라짐에 따라 신명과 사람도 따로 따로 놀게 되었으며 동양과 서양도 따로 따로 놀게 되었다. 새로운 세계개벽으로 이루어진 지상천국에서는 무엇보다도 상생(相生)의 우주의 근본원리가 회복되어 음양이 합덕되고 신인이 조화되어야 한다. 증산이 말씀하신 후천개벽은 원시의 본래의 천지도수를 회복하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동안에 생긴 원한을 풀고 상생의 본래의 길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전경 공사 1-3 「이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은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고 하였고 또 전경 공사 3-5에는 「지기(地氣)가 통일되지 못하므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며 반목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여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선경이 세워지리라」 하였다. 또 전경 교법 3-23에는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각기 자기들의 생활경험의 전승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되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이제 민족들이 제각기 문화의 정수를 걸고 후천에 이룩할 문명의 기초를 정할지니라」 하였다.

너무 분석에만 치우칠 후천세계를 개벽하여 그 본래의 종합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지상천국을 이루는 길이다. 천지의 모든 신이 상생하여 서로 돕고 천하의 모든 종교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도와서 천지신명을 즐겁게 하고 지금까지 각 민족 각 국가로 갈라진 문명을 지구 문명 나아가서는 우주 문명으로 승화시키는 세계가 완성된 것이 새로운 지상천국이다.

3. 행복 추구의 세계

새로운 지상천국의 인류가 가장 많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낙원이 될 것이다. 인류의 행복은 인류가 생물의 일종인만큼 먼저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의식주의 충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물질적인 행복보다 정신적인 행복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정신적 진리인 진선미를 맛보지 않을 수 없다. 육체적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불로장생을 큰 행복으로 알아서 그 불로장생을 위하여 여러 가지 종교도 있고 여러 가지 수련법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술(製藥術)도 있다. 서양에서도 불사약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금술(鍊金術)이 발달되어 그 결과 화학(化學)의 발달을 가져왔고 동양에서도 불사약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단법(練丹法)이 발달되어 그 결과 의학의 발달을 가져왔다. 인간이 생물인이상 죽음을 면할 도리는 없다. 그러나 인간이 신인조화되고 천지인 일체의 경기에 들어간다면 한 개인의 개별적인 생사가 있다하더라도 천지가 남아있고 신명이 건재한 이상 인간의 생명도 영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나뭇잎은 떨어져 없어지더라도 큰 나무가 건재하는 이상 그 떨어진 나뭇잎은 결코 죽은 것이 아니고 다시 소생되어 그 나무와 같이 영원한 것과 같다.

자고로 모든 생물은 자기가 왔다간 흔적을 남기고자 한다. 동물들은 그저 자기 새끼의 출산으로 그 피를 남긴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덤을 남기거나 커다란 업적을 남기기도 한다. 그러나 그 생명을 영원히 남기는 길은 결코 혈연이나 어떤 물질의 형상이 아니라 정신이다. 사람의 육체나 묘는 오래가면 사라지지만 그 정신만은 오래가도 죽지 않는다. 이 정신의 영생이야말로 진짜로 불로장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육체적 죽음을 피할수 없으므로 죽기 싫어하기보다 더 큰 생명에 접목되어 개개의 생사와 관계없이 대 생명과 같이 영생할 수 있다. 장생불사한다는 것은 개개인의 생사를 초월하여 더 큰 생명으로 이어져서 영생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고 가장 신성하고 가장 힘있는 생명은 신명이다. 그리고 우리가 신인조화의 경지에 들어가면 다시 말하여 도통이 되면 곧 신명과 더불어 영생하게 된다.

지상세계에서는 진선미와 더불어 자유, 평등, 박애의 사회정의가 이루어져

야 행복하도록 되어 있다. 대순진리회는 성경신을 신조로 하는데 그것은 서양에서 발달된 정의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의 동양적 표현이다. 자유스럽고 평등스럽고 박애에 찬 사회가 행복된 사회라면 신에까지 통하는 자유인성(誠)과 천지 대자연과 만물을 모두 동일시하는 평등의 경(敬)과 만물을 다 하느님처럼 섬기는 박애인 신(信)은 자유 평등 박애를 내포하면서 그것보다 한층 더 격이 높은 정의가 된다. 성경신이 있는 사회가 바로 지상천국이다.

IV. 지상천국사상의 현대적 의의

1. 천상과 지상의 개방

지상천국사상은 지금까지 아무관계가 없고 교통이 금지되었던 천상과 지상의 경계를 트고 서로 자유스럽게 왕래할 수 있도록 개방시켰다. 지금까지는 천상이나 천국은 아주 먼 곳에 있고 살아서는 갈 수 없는 곳으로 죽어서 영혼이나 갈 수 있는 곳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그 천국이 가까운 곳에 있고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세계가 개혁되어 지상천국이 건설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바로 나의 양심을 되찾으면 정신개혁이 이루어지고 정신개혁이 이루어지면 사람은 신선이 되고 사람이 신선이 되면 그 사는 곳은 천국이 되므로 결코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곳이다. 우리는 천국을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비관하고 때로는 단념하는 수도 있으나 그 천국이 바로 이 지상에 있고 그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 모른다. 지상천국사상은 천상과 지상 즉 이상과 현실을 우리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게 하였다.

2. 자기와 세계의 관련

세계개혁을 이루어서 지상천국을 건설한다는 대순진리회의 목적은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나 따지고 보면 그 커다란 세계개혁이 나의 양심으로 이루어

워진다고 생각할 때 나 개인 한 사람이 커다란 세계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각각 자기 개인위주로 살고 자기 외의 세계에 관하여서는 거의 무관심인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자기 한 사람이 무자기로 정신개벽을 이룩하면 그것이 세계개벽이 되어 지상천국을 건설하는데까지 가게 된다고 하니 나 한사람의 작은 개인이 커다란 세계와 직접 관련되어 인간 한 사람의 힘의 엄청나게 큰 것을 알게 되었다. 따지고 보면 사람 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천지인 일체를 이루어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 개인과 인류세계가 결코 다른 것이 아니고 깊은 연관성이 있다. 그런데 서양식 분석적 사고 방식에서는 하나인 것을 따로 떼어보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사고방식이 우리 동양에게도 들어와 인간 개인과 인류세계와는 일단 별개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세계를 개벽하기 위하여 심하면 폭력 같은 것을 쓰는 정치적 혁명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순사상에서는 그러한 외부적 개혁보다 인간의 정신 즉 양심을 회복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지상천국을 건설하려고 실로 많은 폭력과 전쟁이 일어났지만 성공하기도 쉽지 않고 또 성공한다고 해도 실로 막대한 인간의 희생이 따랐다. 그런데 대순사상에의 내면 양심만 회복시키면 되기 때문에 커다란 희생도 일어나지 않고 진실로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커다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대순진리회의 목적은 지상천국을 건설하여 사람들이 다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위로는 신명들과도 같이 지내는 공존사상이다. 오늘의 인류재앙은 자기 혼자 살거나 자기만 옳다는 독선사상에 연유한다. 이 인류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사상은 만물이 서로 공존하는 즉 상생의 사상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정신개벽에서 시작되는 세계개벽이다.